

홍라희,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 처분…약 2조원 규모

최수빈 기자 [✉](#) | Edited by 이상은 팀장 [✉](#)

입력 2026.01.18 21:03

가 가

상속세 납부·대출금 상환 목적



(그래픽=윤수민 기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를 처분한다.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이 목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일 종가인 13만9000원을 기준으로 약 2조850억원 규모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처분 금액은 계약 당시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분납 중인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원 규모로, 유족들은 2021년 4월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는 오는 4월이다.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



신한은행

